

“개발·보전論 갈등 절충할 것”

세계자원보전연맹 한국위원회 최청일 위원장



“환경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. 전세계가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그

흐름 속에서 나라별·지역별로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.”

지난해 12월 28일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 연맹(IUCN)한국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청일(崔淸一) 한양대 이과대학장은 “99년은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내야 할 마지막 기회”라고 말한다.

48년 파리 근교 퐁텐블로에서 발족한 IUCN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아 전세계 1백38개국 9백여개의 정부 및 비정부단체와 9천여명의 과학자·전문가들이 가입해 활동하고

있는 범세계적 조직. (생태계관리) 교육과 정보교환 등 모두 6개 자연보전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.

국내에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·국립공원협회·자연보전협회·자연보호중앙협의회·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더욱 내실과 추진력을 기할 수 있게 됐다.

“개발논리와 보존논리에는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지요, 정부와 이해당사자들, 그리고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저절충하는 일 역시 IUCN 한국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.”